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이응택** · 유난영*** · 주현주*** · 임승희***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는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주변관계로 정의하였으며 각 관계 수준에 따라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에서 10월까지 김포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803명, 중학생 1,116명, 고등학생 597명 총 2,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관계는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경험이 많더라도 부모관계가 좋은 집단은 가해경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 친구관계는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친구관계가 좋은 집단은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가해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교사관계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 주변관계는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경험이 많더라도 주변관계가 좋은 집단은 가해경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모관계와 주변관계는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완충효과를 지니며 친구관계는 악화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경험에서 가해경험으로의 발전 예방을 위한 부모와 주변관계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친구관계에 대한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가해경험, 사회적 관계

* 2013년 김포시청소년위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임.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제1저자 및 교신저자, samneng@hanmail.net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연구는 학교폭력을 피해와 가해로 구분하고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했다(김순혜, 2007; 김영순, 2007). 그러나 최근 교과부 실태조사에서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모두 경험한 청소년들은 24.4%(9천명)로 보고하였고(뉴스와이어, 2013), 신혜섭(2005)은 청소년 중2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피해집단은 11.2%, 가해집단은 18.5%, 중복경험 집단은 10.8%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오주와 아영아(2006)는 부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가해집단 14.4%, 피해집단 10.6%, 중복경험집단 37.5%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특성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으나 학교폭력 중복경험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 중복경험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피해집단, 가해집단, 중복경험집단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연구에서 피해나 가해경험만 가진 집단에 비해 중복경험집단이 공격성은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면서 중복경험집단의 심리적 문제가 더 심각함을 보여주었다(김희화, 2001; 염영미, 2011; Stein, Dukes & Warren, 2006). 또한 학교폭력 중복집단의 청소년들은 순수가해 및 피해집단에 비해 향후 학교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영일, 2013), 가해경험은 피해경험으로, 피해경험은 가해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순진, 2009; 이상균, 정현주, 2013; 정현주, 2011; 청예단, 2011).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는 항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순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이규미, 이대식, 김영혜, 2003).

최근 학교폭력 중복경험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이희정, 황선영, 2013; 조윤오, 2013a; 조한익, 조민경, 2013).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과정은 피해자들의 높은 분노와 공격성이 영향을 미친다(신혜섭, 2005). 피해 청소년들은 초기에 우울,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에 대한 억울

함과 중요심으로 이어져 공격적인 행동과 가해경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해경험이 있더라도 자존감 안정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가해경험이 감소하기도 한다(조한익, 조민경, 2013). 이는 피해경험이 있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해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족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경험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김순혜, 2007; 김영순, 2007; 정규석, 2008; 황혜원, 신정이, 박현순, 2006). 특히 학교폭력 가해경험집단은 피해경험집단에 비해 가족, 또래, 교사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아, 2005; 박순진, 2009; 신희경, 2006).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해경험이 있더라도 사회적 관계에 따라 가해경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김동기와 사공은희(2007)는 피해경험과 데이트 폭력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으나 연구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과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로 구분하여 지지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또래, 교사, 주변관계를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고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여 2차 학교폭력 발생 예방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 사회적 관계는 조절효과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기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피해경험은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김재엽, 이근영, 2010; 이완정, 정혜진, 2010; Baldry & Winkel, 2003; Barker, Arseneault, Brendgen, Fontaine & Maughan, 2008; Herba et al., 2008; Klomek et al., 2009). 또한 시간이 지나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성적이 낮아지며, 우울, 주의집중, 위축된 모습을 보이게 될 뿐 아니라 자살생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김현숙, 2013; Arseneault et al., 2006; Egan & Perry, 1998). 권세원, 이동은, 장은혜와 한기주(2013)는 중학생 시기의 피해경험은 고등학교 시기의 우울과 자살생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됨을 보여주었다. 장안식(2013)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발달적 변화 연구에서 피해경험집단은 무경험집단보다 삶의 만족도와 자아신뢰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의 경우 학교폭력에서 자유로워지지만 지속 피해집단은 분노와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ish와 Guerra(2004)에서도 공격적 피해집단의 경우 가해 집단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지속적인 피해경험은 내현화된 문제 뿐 아니라 외현화 문제인 분노 및 공격성을 증가시켜 또 다른 가해자가 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을 얼마나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고 통제변인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김민정, 2012; 남영옥, 김정남, 2011; 이웅택, 이은경, 2014) 부모학대, 방임과 같은 부정적 부모관계, 비행친구, 공격성, 성별, 학급, 경제수준을 통제한 후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과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한 인간의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 친구, 이웃, 조직의 구성원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말한다(Aartsen, Tilburg, Smits & Kinscheer, 2004).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을 높이기도 하지만(Antonucci, 2001; Doubova, Perez-cuevas, Espinosa-Alarcon & Flores-Hernandez, 2010) 사회적 관계가 충족 되지 않게 되면 정신건강을 위협받게 된다(Sherman, 2003). 청소년들도 가족, 교사,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면 정신건강을 해치고 문제행동이 증가되지만 긍정적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문제행동은 감소하게 된다(박미애, 김세경, 천성문, 2013; 윤소정, 주자현, 이은영, 2013; 장미경, 2012). 이처럼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계는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친밀한 친구 관계가 없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청소년들은 친구지원이 부족하고, 교사의 지원은 보통수준이며, 부모와 공유하는 부분이 적다고 하였다(조운오, 2013b). 최운선(2005)은 학교폭력 관련 메타분석에서 또래관계, 교사관계, 가족의사소통이 피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효과크기가 높음을 지적하면서 피해경험 청소년들의 또래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의 중요성을 밝혔다.

가해경험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가해경험 청소년들의 경우 비행 친구,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 부모의 학대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도기봉, 이윤형, 2009; 이웅택, 이은경, 2014). 조운오(2013b)는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가해경험을 많이 하게 되지만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가해경험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고, 김민정(2012)도 긍정적 성향의 친구관계는 가해경험을 감소시키지만 친구의 반사회적 성향은 가해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규석(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과 감독이 가해경험을 감소시키며 부모의 학대나 가정폭력은 가해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지영, 박은예, 2013). 이처럼 청소년기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뿐 아니라 가해경험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피해경험, 가해경험, 사회적 관계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청소년들이 가해경험으로 전이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분노나 공격성으로 인함이다. 피해 청소년들의 분노와 증오심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증가시키고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김경은, 윤희미, 2012). 그래서 피해경험 청소년들은 폭력으로 대응하고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신혜섭, 2005; 오주, 아영아, 2006). 그러나 모든 피해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 연결망의 안정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피해경험이 있다하더라도 심리적 문제, 공격성, 폭력적 태도가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노윤채, 신정숙, 박희서, 2012; 김윤경, 정문자, 2009; 김혜원, 이해경, 2000). 장운옥(2013)은 피해경험이 많더라도 가족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비슷한 연구로 김동기와 사공은희(2007)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높은 지지를 보인 집단은 피해경험이 많더라도 데이트 폭력가해행동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 따라 피해경험이 있더라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가해경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도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피해경험은 공격성이나 폭력행동을 증가시키지만 사회적 관계에 따라 폭력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내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는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보다는 피해경험과 대처행동 혹은 데이트 폭력 행동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국한되어 졌다는데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부모, 또래, 교사관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Aartsen et al.(2004)는 사회적 관계를 가족, 친구, 이웃이나 조직구성원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부모, 또래, 교사관계 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관계를 포함하고자 한다. 현대 청소년들은 학원 선생님, 선후배 관계, 아는 지인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만으로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교사, 친구 이외의 다른 주변관계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9월에서 10월까지 김포시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 2,7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에서 불성실하게 작성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2,516명을 최종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피해경험에 따른 가해경험의 교차분석표는 다음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경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모든 대상(2,516명)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2010년 전국 위기실태조사(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에서 사용한 척도 중 피해경험, 가해경험, 사회적 관계 및 통제변인(성별, 학교, 경제수준, 부정적 양육, 비행친구, 공격성)의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위기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하였으며 개발과정은 전문가를 구성하여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청소년 면접을 통해 문항의 변별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화 검증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인구학적 특성

(N=2,516)

	구 분	N	%	
성 별	여학생	1,255	49.9	
	남학생	1,261	50.1	
학교 급	초등학교	5학년	403	16.0
		6학년	400	15.9
	중학교	1학년	406	16.1
		2학년	369	14.7
	고등학교	3학년	341	13.6
		1학년	299	11.9
	2학년	298	11.8	
경제수준	매우 어려운 편이다	25	1.0	
	어려운 편이다	196	7.8	
	보통이다	1,692	67.2	
	잘사는 편이다	529	21.0	
	매우 잘 사는 편이다	74	2.9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	254	10.1	
	무	2,262	89.9	
학교폭력 가해경험	유	236	9.4	
	무	2,280	90.6	

표 2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교차표

(N=2,516)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	유
무	2,117 (93.6%)	145 (6.4%)
유	163 (64.2%)	91 (35.8%)

1) 학교폭력 피해경험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신체폭행’,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 ‘금품갈취’ 총 5문항이며, ‘전혀 없다’ 0점에서 ‘거의 매일’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711로 나타났다.

2) 학교폭력 가해경험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신체폭행’,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 ‘금품갈취’ 총 5문항이며, ‘전혀 없다’ 0점에서 ‘거의 매일’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820로 나타났다.

3) 사회적 관계

본 척도는 전국위기실태조사(배주미 외, 2010)에서 사용한 사회적 관계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주변관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의 문항은 1문항씩이었다. 부모관계는 ‘부모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신다’, 친구관계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교사관계는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주변관계는 ‘내 주변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의 내용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이 긍정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4)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을 선정하였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성별, 학교, 경제수준, 부정적 양육태도, 비행친구, 공격성·충동성·부주의를 선정하여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여=0, 남=1, 학교는 더미1은 초=0, 중=1, 고등=0, 더미2는 초=0, 중=0, 고=1로 처리하였고, 경제수준은 ‘매우 어려운 편이다’ 0점에서 ‘매우 잘사는 편이다’ 4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대 3문항으로 ‘나에게 심하게 욕하신다’,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부모관계는 '서로 대화가 없다',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방임은 '술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외박을 해도 어디서 지냈는지 확인하지 않으신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비행친구는 '가출한(했던) 친구가 있다',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갔던) 친구가 있다' 등의 4문항, 공격성·충동성·부주의는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잘 참지 못한다', '중요한 일을 할 때 주의집중을 못한다' 등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본 연구는 2013년 9월에서 10월까지 김포시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에 공문으로 설문요청을 하였고 학교장의 허락과 학생 동의를 구한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를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는 5~6학년, 중학교는 1~3학년, 고등학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년별 1~3학급에 설문을 요청하였고 동의한 학교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진행과 수집은 교과담당 교사가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본 연구목적과 안내사항을 설명한 뒤 교과담당교사 수업시간에 설문을 진행하였고 수집하였다.

분석방법과 절차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식을 구해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통제변인을 제외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교사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부모관계($r=-.045$, $p<.05$), 친구관계($r=-.077$, $p<.001$), 주변관계($r=-.076$, $p<.001$)와는 미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학교폭력 가해경험($r=.271$, $p<.001$)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부모관계만이 학교폭력 가해경험($r=-.072$, $p<.001$)에 미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표 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성별	학교1	학교2	경제 수준	공격·충동·부주의	부정적 양육	비행 친구	학교폭력 피해	부모 관계	친구 관계	교사 관계	주변 관계	학교폭력 가해
학교1	.038	1											
학교2	-.027	-.499***	1										
경제 수준	.028	-.048*	-.183***	1									
공격·충동·부주의	.013	.101***	.079***	-.176***	1								
부정적 양육	.085***	.050*	.187***	-.095***	.483***	1							
비행친구	.025	.071***	-.016	-.113***	.252***	.242***	1						
학교폭력 피해	.005	.029	-.087***	-.011	.110***	.124***	.099***	1					
부모 관계	-.073***	-.065***	-.063**	.179***	-.288***	-.429***	-.120***	-.045*	1				
친구 관계	-.127***	-.016	.025	.077***	-.189***	-.246***	-.029	-.077***	.567***	1			
교사 관계	-.109***	-.047*	-.060*	.104***	-.247***	-.224***	-.094***	-.006	.503***	.506***	1		
주변 관계	-.103***	-.043*	-.048*	.131***	-.262***	-.317***	-.063**	-.076***	.653***	.772***	.564***	1	
학교폭력 가해	.114***	.037	-.072***	-.031	.204***	.185***	.208***	.271***	-.072***	-.012	-.037	-.025	1
M	.501	.444	.238	2.171	.875	.246	.135	.053	3.035	3.143	2.750	3.177	.049
SD	.500	.497	.426	.645	.719	.434	.279	.220	1.050	1.068	1.174	1.034	.231
N	2,516	2,516	2,516	2,516	2,516	2,516	2,516	2,516	2,516	2,516	2,516	2,516	2,516

* $p<.05$, ** $p<.01$, *** $p<.001$

더미변수: 성별(여=0, 남=1), 학교1(초=0, 중=1, 고=0), 학교2(초=0, 중=0, 고=1)

3.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4와 같다. 본 연구결과와 회귀모형은 14.9%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F=54.919(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성별, 학교, 경제수준, 부정적 양육, 비행 친구, 공격성을 통제한 후에도 가해경험($\beta=.222,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가해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B	S.E	β	t	B	S.E	β	t
성별	.043	.009	.093	4.893***	.044	.009	.095	5.115***
학교1	-.034	.010	-.074	-3.279***	-.028	.010	-.060	-2.726**
학교2	-.089	.013	-.164	-7.087***	-.071	.012	-.131	-5.737***
경제수준	-.003	.007	-.009	-.462	-.003	.007	-.008	-.409
공격·충동·부주의	.042	.007	.132	5.981***	.038	.007	.118	5.470***
부정적 양육	.051	.012	.096	4.342***	.040	.011	.076	3.536***
비행친구	.147	.017	.177	8.753***	.129	.016	.157	7.908***
학교폭력피해					.233	.020	.222	11.840***
F		40.489***				54.919***		
R ²		.102				.149		
adjR ²		.099				.146		
R ² change						.047***		

* $p<.05$, ** $p<.01$, *** $p<.001$

4.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모델

1에서는 통제변인과 독립변인(피해경험) 그리고 조절변인(사회적 관계)이 투입된 후를 살펴보았으며 모델 2에서는 통제변인, 독립변인, 조절변인 그리고 상호작용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설명력이 증가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과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확인하였다. 이학식과 임지운(2013), 이익섭과 이윤로(2007) 그리고 이일현(2014)은 공차한계 .1이하, 분산팽창요인 10이상일 경우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 .3이상, 분산팽창요인 3.3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를 살펴보면, 모델 1의 설명력은 15.5%($p < .001$)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인과 조절변인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가해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절변인은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2의 설명력은 17.6%($p < .001$)로 나타나 모델 1보다 2.1%($p < .001$) 증가하였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여전히 가해경험을 설명하고 있었다. 상호작용 변인에서도 피해 × 부모, 피해 × 친구, 피해 × 주변관계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유의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 회귀식을 구하여 회귀선의 기울기를 파악하였다. 평균 0을 중심으로 평균 ± 1표준편차로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집단의 조절회귀식을 구하여 기울기를 비교한 그래프는 다음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을 살펴보면, 피해경험이 많더라도 부모관계와 주변관계가 높은 집단은 가해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주변관계는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 완충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또래관계가 높은 집단은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가해경험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 또래관계는 악화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검증

변인	모델 1						모델 2						
	B	S.E	β	t	공차	VIF	B	S.E	β	t	공차	VIF	
통제변인	성별	.048	.009	.104	5.556***	.970	1.031	.046	.009	.100	5.434***	.968	1.033
	학교1	-.029	.010	-.063	-2.866**	.694	1.441	-.029	.010	-.062	-2.849**	.693	1.442
	학교2	-.073	.012	-.135	-5.875***	.644	1.552	-.071	.012	-.130	-5.763***	.643	1.555
	경제수준	-.004	.007	-.010	-.527	.903	1.108	-.005	.007	-.015	-.785	.900	1.111
	공격·충동·부주의	.040	.007	.125	5.746***	.715	1.399	.039	.007	.121	5.605***	.713	1.402
	부정적양육	.046	.012	.086	3.798***	.651	1.536	.044	.012	.083	3.640***	.641	1.561
	비행친구	.125	.016	.152	7.658***	.861	1.161	.125	.016	.151	7.699***	.860	1.163
독립	학교폭력피해	.238	.020	.227	12.073***	.955	1.047	.252	.023	.241	11.165***	.710	1.409
조절변인	부모관계	-.007	.006	-.031	-1.182	.485	2.060	-.007	.006	-.033	-1.261	.479	2.089
	친구관계	.012	.006	.058	1.936	.381	2.626	.007	.006	.033	1.115	.374	2.670
	교사관계	-.002	.005	-.009	-.406	.628	1.592	-.001	.005	-.007	-.284	.625	1.599
	주변관계	.010	.007	.046	1.402	.315	3.179	.014	.007	.061	1.867	.310	3.231
상호작용항	피해×부모						-.094	.022	-.092	-4.353***	.745	1.342	
	피해×친구						.161	.023	.213	6.868***	.343	2.919	
	피해×교사						-.036	.020	-.041	-1.822	.657	1.522	
	피해×주변						-.098	.024	-.131	-4.068***	.316	3.164	
F			38.174***			33.367***							
R ²			.155			.176							
adjR ²			.151			.171							
R ² change						.02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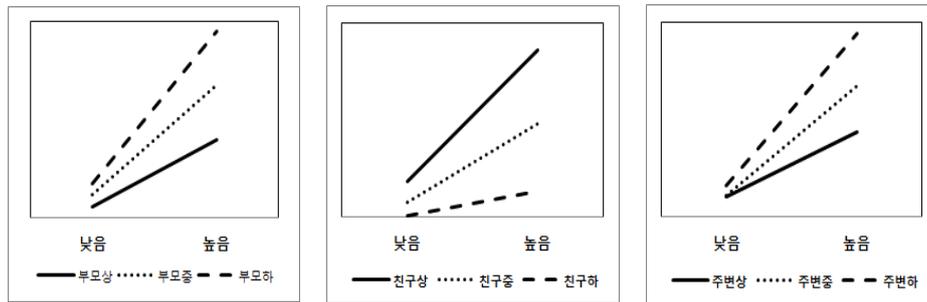


그림 1. 조절효과 결과

V. 논 의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회귀분석에서도 피해경험은 가해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아영아, 정원철, 2012). 또한 김경은과 윤희미(2012)의 연구에서 피해경험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 가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면서 피해경험이 공격성이나 사이버 폭력과의 연관성을 가진다는데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이것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현적 문제 뿐 아니라 분노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로 인해 가해자로 연결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 청소년들의 분노와 공격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영일(2013)은 지속적인 피해경험 청소년들의 관심과 개입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지속적인 피해경험은 더 큰 분노와 공격성향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부정적 사회에 대한 공격행동을 수반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피해경험 청소년들에 대한 우울 및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와 더불어 잠재된 분노를 표출하고 억압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치료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을 다양하게 투입하였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관계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 부모관계가 긍정적인 집단은 피해경험이 많더라도 가해경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피해경험이 많더라도 공격적 대처행동을 덜 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었다(장윤옥, 2013). 피해경험 청소년들의 경우 초기에는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해 있지만 피해에 대한 억울함과 복수심이 후기에 작용되면서 가해행동을 야기 시키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나 관심은 억울함이나 분노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청소년기가 부모에서 또래관계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이지만 양가적인 관계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장석진, 송소

원, 조민아, 2011). 하지만 피해경험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지지적 관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종화(2013)의 연구에서 따돌림 피해 청소년들은 부모 개입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는데 ‘부모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피해경험 청소년들의 부모가 자녀의 이해나 심리적 안정보다는 사건 해결에만 앞서게 되면서 또 다른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정신적 충격과 당혹스러움이 될 수 있다(정운경, 2014).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가 침착하게 자녀의 안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가해 청소년의 경우 부모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피해 청소년들의 부모상담도 의무화하여 자녀를 위한 적절한 양육태도와 지지적 체계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면 학교폭력 2차 발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친구관계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친구관계가 높은 집단은 피해경험이 많으면 가해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의 지지가 많으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감소되지만 친구수가 많으면 가해경험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이해경, 김혜원, 2000). 친구들이 많은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분노를 친구들에게 표현하게 되면서 친구들의 지지와 동요로 인해 가해자가 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학급에서는 또래들의 대처교육을 실시하여 또래들의 동요를 막고 적절한 대처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예방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신고에 대한 중요성이나 폭력행동에 대한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폭력행동의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다(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예방교육 시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 및 가해 청소년들을 위한 또래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거나 학교폭력 발생 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또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또래들의 동요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교사관계는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박주형, 정성수, 2012; 이웅택, 이은경, 2014)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 교사의 체벌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담임교사의 지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김미영(200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가해와 피해로 양분화

했을 시에는 교사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된 후 교사관계는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 후 교사는 그 사건에 대한 과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질문과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위기의식을 줄 수 있어 교사관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피해 후 교사관계의 도움여부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관계 척도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의 문항으로 지지적 관계에 관한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주변관계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 주변관계가 높은 집단은 피해경험이 많더라도 가해경험을 적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폭력 2차 발생예방에 주변관계가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냈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최근 청소년들은 사회 관계망이 확장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는 가족, 친구, 교사관계에만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졌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학원 선생님, 선배 관계, 멘토, 상담사 등 다양한 관계망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주변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 청소년들은 피해라는 창피한 상황에서 가족 혹은 친구에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엔 힘든 과제일 수 있다. 이때 주변지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때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될 수 있다. 특히 상담 장면에서 피해 청소년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주변관계와 연계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최근 청소년 멘토-멘티와 같은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문제 및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지적 관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지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변관계의 정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주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우울, 자살과 같은 내현적 문제 뿐 아니라 분노와 공격성 등의 외현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피해 청소년 대상의 부모교육이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가해

청소년 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들의 부모교육도 의무화 하여 피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1차적 관계인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 또래들의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사후 개입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였다. 학교폭력 발생 후 학급안정과 또래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또래 동조현상을 예방하고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에게 주변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하였고 기존에는 청소년기 사회 환경을 가정과 학교에 국한 지었으나 주변관계까지 이해해야 함을 나타냈다. 특히 선후배관계, 학원교사, 멘토, 상담사 등 청소년기 주변 애착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김포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일반화의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지역적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사회적 관계 측정도구의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관계요인은 각각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관계 의미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충분한 의미를 포함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위기실태조사에 사용되는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각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할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권세원, 이동은, 장은혜, 한기주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중학생 시기 학교 폭력 피해경험의 종단적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1), 205-231.
- 김경은, 윤희미 (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동기, 사공은희 (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5), 99-124.
- 김미영 (2007). 학교체계가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2), 287-314.
- 김민정 (2012). 아동기 공격성과 청소년 폭력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학교 영역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23, 1-28.
- 김선아 (2005).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가해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피해 중첩집단과 일반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5-36.
- 김순혜 (2007). 학교폭력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7(2), 67-85.
- 김영순 (2007).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애니어그램연구**, 4(1), 71-97.
- 김윤경, 정문자 (2009).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대안가정학회**, 47(8), 1-11.
- 김재엽, 이근영 (2010).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지영, 박은예 (2013). 부모의 학대와 중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동간 관계: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9), 25-49.
- 김현숙 (2013).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21-143.
- 김혜원, 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김희화 (2001).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일반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및 가해-피해집단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8(2), 119-141.

- 남영옥, 김정남 (2011).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여자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40), 243-264.
- 노운채, 신정숙, 박희서 (2012).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자살충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7(8), 171-179.
- 뉴스와이어 (2013.11.29).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25706>. 에서 2014년 5월 3일 인출.
- 도기봉, 이운형 (2009). 청소년의 교사체벌과 친구비행에 관한 간접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개발연구**, 15(3), 225-245.
- 박미애, 김세경, 천성문 (201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재활심리연구**, 20(3), 627-652.
- 박순진 (2009).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가해 경험의 발전. **형사정책연구**, 20(1), 71-94.
- 박주형, 정성수 (2012).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교의 영향 요인 탐색. **교육행정학회지**, 30(3), 1-19.
-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 2010년 전국위기실태조사. **청소년상담연구**, 1-154.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37-149.
- 신희경 (2006).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297-323.
- 아영아, 정원철 (2012).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12), 331-354.
- 염영미 (2011).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청소년의 특성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8(3), 117-136.
- 오주, 아영아 (2006).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2(1), 79-100.
- 윤소정, 주자현, 이은영 (2003).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급응집력 및 학교적응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1(2), 185-207.

- 이규미, 이대식, 김영혜 (2003). 심각한 폭력(살인) 가해 학생에 대한 사례분석: 폭력 유발요인과 예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367-382.
- 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연구: 논리모델에 기반하여. **한국청소년연구**, 20(2), 257-281.
- 이상균, 정현주 (2013). 학교폭력 경험과 부모양육 행동간의 종단적 관계 및 잠재유형 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4, 1-29.
- 이완정, 정혜진 (2010). 아동청소년기 폭력노출경험과 대학생의 정신건강. **아동과 권리**, 14(3), 385-407.
- 이익섭, 이운로 (2007). **사회복지 조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일현 (2014). **Easy 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 이웅택, 이은경 (2014).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행동 요인의 남·녀 차이분석. **청소년 문화포럼**, 37, 59-79.
- 이종화 (2013). **중학생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경험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13). **SPSS 20.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 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이희정, 황선영 (2013). 청소년의 ADHD 성향이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2, 83-108.
- 장미경 (2012). 일반청소년과 문제행동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망의 특징과 도움추구태도.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18.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431-451.
- 장안식 (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발달적 변화. **한국범죄학**, 7(1), 61-81.
- 장윤옥 (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61(1), 231-260.
- 정규석 (2008).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폭력 영향요인 비교. **사회과학연구**, 24(4), 323-338.

- 정윤경 (2014).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의 심리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주 (2011). **아동기 또래괴롭힘 가해/피해 경험과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간 관계와 예측요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일 (2013).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변인.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6(2), 67-85.
- 조윤오 (2013a).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실태 및 유발요인 차이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155-179.
- 조윤오 (2013b). 기회이론을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요인 분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자학연구**, 21(1), 33-55.
- 조한익, 조민경 (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913-932.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운선 (2005). 학교폭력 관련변인에 관한 매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2), 95-111.
- 황혜원, 신정이, 박현순 (2006).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체계적 요인들간의 경로분석. **아동권리연구**, 10(4), 497-526.
- Aartsen, M. J., Tilburg, T. V., Smits, C. H. M., & Kinpscheer, K. C. P M. (200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impact of physical and cognitive decline on the personal network in old 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250-266.
- Antonucci, T. C. (2001). *Social relations: An examination of social network,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ntrol*.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5th ed.). 427-453.
- Arseneault, L., Walsh, E., Trzesniewski, K., Newcombe, R., Caspi, A., & Moffitt, T. E. (2006). Bullying victimization uniquely contributes to adjustment problems in young childre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cohort study. *Pediatrics*, 118(1), 130-138.
- Baldry, A. C., & Winkel, F. W. (2003).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t school and at home as risk factors for suicide cognition among Italian

-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6(6), 703-716.
- Barker, E. D., Arseneault, L., Brendgen, M., Fontaine, N., & Maughan, B. (2008). Joint development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ce: Relation to delinquency and self-har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7(9), 1030-1038.
- Douvoba, S. V., Perez-Cuevas, R., Espinosa-Alarcon, P., & Flores-Hernandez, S. (2010). Social network types and functional dependency in older adults in Mexico. *BMC Public Health*, 10(104), 1471-2458.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Hanish, L. D., & Guerra, N. G. (2004). Aggressive victims, passive victims and bullies: Developmental continuity or developmental change?. *Merrill-Palmer Quarterly*, 50(1), 17-38.
- Herba, C. M., Ferdinand, R. F., Stijnen, T., Veenstra, R., Oldehinkel, A. J., & Omel, J. et al. (2008). Victimization and suicide ideation in the trails study: Specific vulnerabilities of victi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8), 867-876.
- Klomek, A. B., Sourander, A., Niemela, S., Kumpulainen, K., Piha, J., & Tamminen, T. et al. (2009). Childhood bullying behaviors as a risk for suicide attempts and completed suicide: A population-based birth cohort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8(3), 254-261.
- Sherman, A. M. (2003). Social rela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dults with knee osteoarthriti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2), 227-257.
- Stein, J. A., Dukes, R. L., & Warran, J. (2006). Adolescent male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A comparison of psychosoci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2(3), 273-282.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both school victimization and school bullying

Lee, Eungtaek* · Yoo, Nanyoung* · Chu, Hyunju* · Lim, Seunghui*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ctimization and bullying experience.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2,156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Gimpo city were recruited as subjects. The data collected was then analyzed by means of the SPSS 18.0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friends and surrounding relationships exhibit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ctimization and bullying experience. Second,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did not exhibit any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ctimization and bullying experienc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s and surrounding relationships appeared to have a protective function in terms of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s of school victimization experience on school bullying experience. However, relationships with friends appeared to have an aggravating effect. The findings were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creating intervention plans aimed at preventing school violence.

Key Words : school victimization, school bullying, social relationships

투고일 : 2014. 5. 26, 심사일 : 2014. 8. 1, 심사완료일 : 2014. 8. 11

* Foundation for the gimpo youth